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만전

장수군, 선제적 대응으로 긴급 사전방제 약제지원·방제 예방 홍보

장수군은 지난 18일 무주군에서 과수화상병이 첫 발생함에 따라 과수화상병이 무주 근접 지역인 장수군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해 13일 긴급방제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선제적인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긴급방제지원을 실시, 과수화상병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문자 발송과 현수막 게첨 등 화상병 방제 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해 농가들이 과수화상병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23일까지 국관리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현장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19일부터 23일까지는 과수화상병 대상 약제 공급 및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상병 정밀예찰



사과 방제 모습

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군 합동에 철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이 장수군 근처까지 전파된 상황 속에서 장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과농가에서는 반드시 긴급방제를 실시해주시길 바라며, 준수사항을 적극 실천해 과수화

상병 발생 차단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4월 감작스런 이상저온 현상으로 개화기 과수 저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현장점검반을 구성 피해 점검에 나섰으며, 피해 보상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취약계층 ‘우리 집 클리어’ 사업 추진

독거노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무주군은 14일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분과 위원들과 적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적성면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16명이 ‘우리 집 클리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리 집 클리어’ 사업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민들의 깨끗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청소와 방역, 주거개선 등 복합면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우리 집 클리어’ 사업 대상지



5월에는 적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좋은 이웃들’ 사업을 통해 보일러실 보수를 요청한 상태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각구 지역복지분과장(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연계팀장)은 “민·관이 함께 취약계층을 지원 활동을 펼치게 돼 더욱 뜻깊었고 무엇보다 어르신이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게 된 게 흐뭇했다”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주거환경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안심식당 10개소 추가 지정

진안군은 위생과 시설관리가 우수한 음식점 10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위생적인 식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한 식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지원 중이며, 올해까지 총 54개소를 지정했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 먹기(개인

접시, 국자 등 덜어 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 장치(용품) 비치로 4대 실천과제를 실천하는 식당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진안읍 9개소와

부귀면 1개소로 제주형제육(시장2길 4), 행복식당(진장로 29), 교촌치킨(진장로 26), 7번가피자(진무로 1123), 너도밤꽃(시장1길 16), 진안마이산목밥(시장1길 16),マイ스케치(외사양길 81), 오늘의 먹거리(중앙로 64), 소태정 닭한마리 칼국수(부귀면 운장로 28-11), 목립엔 국수(진안읍 487)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식당 출입구에 안심식당 현판이 부착되고, 찬기, 접개, 국자 등 식시문화개선 물품이 지원되며, 민간 포털 및 지도 앱(네이버·T맵 등)에 위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위로 방문

진안군, 영농철 맞아 공동숙소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진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를 찾아 직접 인솔해 가면 된다. 현재까지 군은 284농가에 773명의 인력을 공급했다.

임진숙 농촌경제국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최종진 진안조공 대표는 지난 13일 저녁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필리핀 카비테주 미갈레스 시에서 도입한 4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를 방문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일일근로자가 필요한 간헐적 일손지원을 위해 도입했다. 현재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3개 농협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전, 안천, 동향, 주천, 용담 권역은 진안농협(430-3641)이 관리하면서 공동숙소는 상전면 신연미을에 두고 있고 백운, 성수, 미령권역은 백운농협(430-3721)이 관리하고 백운면 원촌마을에 공동숙소를 마련했다. 부귀, 정천, 진안읍은 부귀농협(433-5355)이 관리하고 공동숙소는 부귀면 세동리에 있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해당 농협에 요청하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진안=우태만 기자

공동숙소에서 작업장까지 직접 인솔해 가면 된다. 현재까지 군은 284농가에 773명의 인력을 공급했다.

이날 임진숙 농촌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여가며 입금된 통장과 외국인 등록증 등을 배부했다. 또한 난방, 취사시설, 사워실, 화장실 등을 점검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이어갔다.

필리핀 카비테주 미갈레스 근로자들은 “처음에 낯설고 두렵고 불안했지만 주민이나 농기주도 친절히 잘 대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안에서 둘도 많이 벌고 농사도 배우게 되어 기쁘고, 성실히 근무해서 내년에도 성실근로자로 다시 오고 싶다”고 일을 모았다.

임진숙 농촌경제국장은 “마나면 이 국땅인 진안에 오셔서 떠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형태도 다르고 모든 것이 생소한데도 열심히 농업근로에 임해 줘서 감사하다”며 “생활하는데 부족한 것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라도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에 전화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소식통



장수군의회,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현장조사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023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훈)에서는 장수누리파크 자연놀이터 조성사업 현장 등 관내 13개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내용을 조사했다.

특별위원회는 군정 주요사업 방문을 통해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사업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과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장수군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특별위원회는 다가오는 22일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이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진안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587건 10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 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웹택스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과하게 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양파농가 출하현장 방문

최훈식 장수군수는 14일 산서면 고품질 양파의 올해 첫 출하를 앞두고 산서면 소재 양파농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농기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에서 최 군수는 전반적인 양파 수확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농기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폭넓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수군에서 출하하고 있는 양파는 품질과 저장능력이 뛰어나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 양파보다 높은 출하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산서면의 주 소득 작물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6월 수확 기간 중에만 장수군

에서는 약 47만 망 정도가 생산·출하돼 전국 각지에 공급되며 약 82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양파 농기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경영을 위해 △고품질 양파제비 지원사업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양파는 산서면의 대표 지역특화 작물인 만큼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서 양파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귀 기울이고 기술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